

/지역 단신/

5단계 창업지원 종합 교육사업

전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영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5단계 창업지원 종합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순천소상공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창업지원 교육사업은 창업 컨설팅부터 기초 및 심화 이론교육, 현장 실습 및 필드 컨설팅,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사후관리까지 5단계의 패키지 형태로 이뤄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5일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dc.or.kr)나 순천, 여수, 목포, 나주 등 전남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암군 620억 중형 조선소 유치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에 중형 조선소가 들어선다. 영암군은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중견 업체인 목포 남육건설(대표 이윤남)과 62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군 관계자는 "남육건설은 전남도의 서남권 전략 사업인 조선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해 삼호읍 용당부두 준공예정지 9만여 평에 중형 조선소를 건립한다"면서 "조선소가 건립되면 근로자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등 서남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신안 단전 양식장 피해대책위 결성

지난 20일 신안군 암태면 해역 송전선로 파손에 따른 정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양식 어민들이 단전 양식장 피해대책 위원회가 결성된다.

위원회 결성은 차후 배상협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총 37여가로 구성되며 피해를 확인되는 어가는 추후에 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하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교사 1분은 학생 30분” 나주교육청 교육혁신 경진대회

나주교육청(교육장 홍희준)은 최근 나주초등학교 백년관에서 관내 초·중·고교를 상대로 “교육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경진대회는 나주지역 초·중·고 교장을 비롯한 혁신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40여개 학교에서 사전 제출한 혁신 사례 가운데 선정된 우수작 7편이 발표됐다.

특히 발표된 우수사례 7편 가운데 일선 교사들의 사명감을 강조한 “교사 1분은 학생의 30분”이라는 제목의 혁신 사례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홍희준 나주교육장은 “나.자.지”(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운동의 꾸준한 동참을 강조하면서, 교육혁신의 각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변화된 다양한 교육활동의 확산을 통해 교육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나주교육청은 이번 교육혁신 경진대회를 통해 관내 교육공무원의 혁신 마인드가 향상되고 혁신 활동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10만평 흥련 왜 잠재우나”

나주 동강면 우습제 연꽃 군락지 관광자원화 한목소리

1백만 송이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나주시 동강면 연꽃 군락지를 하루 빨리 관광 자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강면 월랑리 후동마을 앞 우습제는 면적이 무려 10만평에 달한다. 연꽃도 '흥련'이어서 그 규모와 화려한 자태에

사람들이 넋을 잃을 정도다.

그러나 무안군 백련지는 매년 연꽃 축제가 개최되는 등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지만, 나주시 동강면 우습제는 아직까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우습제 흥련의 장관을 가까이

서 즐기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반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우습제 특 근처에서 먼발치로 연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민들은 우습제의 경우 나주에서 국도 23호선을 통해 동강면으로 진입하다 보면 조입에 있는데다, 영산포터마을에서 15Km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서남부권을 비롯 KTX고속열차를 이용한 수도권 관광객도 쉽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습제는 사람의 손때를 거의 타지 않아, 가꾸어지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모씨(43·나주시 삼영동)는 “무안 백련지에 비해 나주시 동강면 연꽃군락지도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우습제의 연꽃이 나주시의 관광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자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흥련이 만개한 나주 동강면 연꽃 군락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여수시립국악단 무더기 징계

허위공문서 작성·공연 출연료 나눠가져

여수시립국악단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외부 공연 출연료를 부당하게 받는 등 각종 부적절한 행적으로 무더기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여수시는 28일 “시립국악단에 대한 최근 자체 조사 결과 북부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 지휘자와 단무장 등 상임단원 8명에 대해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악단은 올 1월부터 매

월 여수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 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매일 120만원씩 8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빼돌려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외부 공연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지난 4월 순천 낙안민속축제에 출연해 사례비로 1천3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달 경남 김해에서 열린 가락축제는 단장(부시장) 승인없이 출연, 사례비 400만원을 받았다.

이어 6월에도 부산 해운대 모래 축제

에 출연해 400만원을 받았고 7월에도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사령부 군 위로 행사에 출연해 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악단은 이 같은 사실을 여수시에 알리지 않은 채 받은 돈을 자체적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휘자 A씨는 시의 사정승인 없이 지난해 1학기부터 전반기 모 대학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해측, 정직, 견책 등이 가능하다”면서 “경찰 수사 의뢰 여부는 징계 결과를 지켜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고려청자 2점 700년만의 귀향

강진군, 개인 소장자에 구입

고려청자의 산실, 강진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 고려청자 2점이 700년 만에 강진군의 품으로 돌아왔다.

강진군은 28일 “서울에 사는 개인 소장자로부터 고려청자 상감문화도 란문개합과 청자상감문잔탁 등 2점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청자는 10월 중순 열리는 강진

청자문화제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청자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때 20여개국 정상 만찬용과 선물용으로 제공돼 눈길을 끌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구름과 학, 모란 등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강진군이 구입한 청자합은 구름과 학의 몸통 부분을 도장으로 눌러 찍어 제작하는 등 조각기법과 기형이 특이해 당시 상감기법과

제작방법 등을 연구하는데도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자상감문잔탁은 차를 마시는 찻잔과 받침이다.

이번 청자합 등 추가 구입에 따라 강진군이 청자도요지내 청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자 진품은 160점으로 늘었으며 앞으로 진품 구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화순 지식천변 청동기 유적 논란

백제문화권 ‘왕궁터 등 발견’

고고학적 ‘성금한 결론 위험’

화순군 지식천변에서 청동기시대 왕궁 추정터와 이를 에워싼 다수의 거대 석산(石山) 조각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지역 고고학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순군은 “한국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지석천 선사문화 복원을 위한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지식천변에서 청동기시대의 왕궁으로 보이는 터가 분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왕궁터 주변에서 사람이 깎은 흔적이 있는 높이 60m, 길이 500m 가량의 범, 거북이, 새, 등등을 형상화한 10여개의 석산 조각상과 왕궁터 맞은편의 대곡리 주변에서 천단, 제단, 칠성단, 천군 무덤, 당채터 등 소도(蘇道) 별읍(別邑)과 관련된 유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고고학계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유적지에서 발견되는 토기 파편과 같은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궁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송곡리나 검단리 유적에서 보듯이 지대가 높은 구릉지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임영진 전남대박물관장은 “몇년전 전남대가 화순지역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이일대를 조사했으나 청동기 주거지대로 추정할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학문적 검증절차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 한재골에 도시공원 조성

평장리 14만평 환경성 조사 60억 들여 놀이터 등 설치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담양군 한재골에 도시공원이 조성된다.

담양군은 최근 대전편 평장리 한재골 일원 14만여평을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사전 환경성·풍경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또 환경성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초 이곳을 도시공원 시설로 결정해 60억원(토지 매입비 40억

원 포함)을 들여 산책로를 만들고 파고라, 놀이터 등을 설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조형물 등 인공적인 시설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공원이 조성될 경우 한재골은 담양군민은 물론 인근 광주시민을 위한 휴식처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세가 병풍을 둘러놓은 모습과 비슷해 이름지어진 병풍산(822.2m)에 있는 한재골은 올 여름 하루 평균 5천여명이 다녀갈 만큼 담양을 대표하는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담양=차재희기자 jhwaha@



장성군 주변 무허가 노점상 철거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최근 장성군 주변 국도 1호선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무허가 노점상을 일괄 철거했다. 장성군은 이번 불법 노점상 철거를 시작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 환경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ggo@



정종득 목포시장 DJ 관련 발언

우리-민주당 성명전 시끌

정시장 “순수한 지원 요청”

정종득 목포시장이 이날 초 한나라당 강대섭 대표와 간담회에서 언급한 지역 개발 관련 'DJ 책임론'이 확대해석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성명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화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대변인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9일 강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목포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수십년 동안 지역적으로 저개발되는 처벌을 받아 왔다”며 한나라당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정 시장의 발언을 각 언론에 알리는 한편 논평을 통해 “목포가 발전하지 못한 책임과 호반이 홀대받은 이유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지역차별 정책 때문”이라며 “목

포가 발전하지 못한 책임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전가한 정종득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박개이트”로 수세에 몰린 열린우리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옹호한답시고 목포시장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공짜까지 짝이 없다”며 “김대중 당” 싫다고 ‘노무현 당’을 만든 배은망덕한 자들이 언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격정했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해 호남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목포권이 차별받은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간담회 당시 발언은 그동안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소외받은 정치권에 대한 서운함으로 더 많은 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배려해달라는 순수한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포=임영춘기자 lyc@

movies

인기영의 골짜기 시즌 보너스

Happy Time

영화안녕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안역국사거리 ☎예약1544-0600

배과 과물 (12세 이상) 최고급관

2관 아이스케키 (15세)

3관 마이애미바이스 (18세)

4관 카실랑 (18세)/사랑하니까 괜찮아 (12세)

5관 신데렐라 (15세)

6관 13구역 (15세)

7관 건는 여의 원벽한 비밀 (15세)

8관 원탁의 천사 (15세)

9관 예의없는 것들 (18세)

Megabox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자점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내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입장인 무제한 공짜 (매입지니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고미해라 마이 김해라 마이

원탁의천사

3월 24일 대개봉

주최장이 편한 극장

엔티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1관 원탁의천사 (15세)

2관 신데렐라 (15세)

3관 예의없는것들 (18세)

4관 마이애미바이스 (18세)/건는 여의 원벽한 비밀 (15세)

5관 과물 (12세)

6관 카실랑 (18세)/사랑하니까, 괜찮아 (12세)

7관 아이스케키 (15세)

매주 2일부리상영 쿠폰(22일) 심야상영 (주말 5시~9시) (12세부터)

• 4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2006년 4월 15일) • 4월 15일, 22일, 29일 (12세부터)

• 4월 15일, 22일, 29일 (12세부터) • 4월 15일, 22일, 29일 (12세부터)

마이애미바이스

마이애미바이스

월드스타 영화시영 • 예약: www.joybc.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이남철 상무점

해남점 (부영화관동면) 상무점 (상무영원관 아파트 사이)

1관 사랑하니까 괜찮아 (12세)

2관 건는 여의 원벽한 비밀 (15세)

3관 신데렐라 (15세)

4관 몬스터 하우스 (8세부터)

5관 롤리이 디디 (12세)/다세포 소녀 (15세)

6관 카실랑 (18세)

7관 과물 (12세)

8관 마이애미 바이스 (18세)

9관 과물 (12세)/게드전기 (12세부터)

10관 과물 (12세)

• 4월 15일, 22일, 29일 • 4월 15일, 22일, 29일 • 4월 15일, 22일, 29일

1588-7941

상무점 (10시) 1588-7941

상무점 (11시) 1588-7941

상무점 (12시) 1588-7941

씨너스 광주 8개관

9월15일 개관 예정

T.383-3445~7

★남·여 직원 및 이브타임 모집★

상가임대문의

T.(062)384-3535